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이신열 (백석대학교)

요약문

1900년대 초반에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은 성령세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전통적 교회와 그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 결과로 오순절 교회는 근본주의적, 분파주의적 교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1960년대 이르러 오순절 운동이 전통적 교회 속으로 파고들면서 은사주의 운동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오순절 교회가 복음주의화 되었음을 가리키며 이를 통하여 이 교회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복음주의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순절 교회가 은사주의 운동을 추구하는 교회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예배에 있어서 자유와 질서의 균형에 대한 강조, 둘째, 기존의 전통적 교회들과 연합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제화, 세계화된 교회로 변화를 시도, 셋째, 은사에 대하여 더욱 다양한 이해를 추구하는 성령론적 강조가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인식하도록 유도,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령론적 강조는 교회의 기독교적 요소에 대한 강조점을 놓치기 쉬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리킨다.

1. 서론

1901년에 찰스 파함 (Charles Parham)¹⁾에 의해 시작된 성령세례 운동은 1905년에 휴스턴 (Houston)에 소재한 그의 성경학교에서 이를 체득한 윌리엄 시모어 (William Seymour)²⁾에 의하여 아주사 대부흥운동 (Azusa Street Revival, 1906)으로 발전하였다. 오순절 운동은 그 출발에 있어서 교회내의 부흥운동이 아니라 초교파적 부흥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러한 초교파적 부흥운동은 그 성격상 어떠한 단체 (organization)나 그룹 (fellowship)을 형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었지만 시모어는 '사도적 신앙운동' (The Apostolic Faith Movement)이란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 명칭은 그의 스승 파함에 의하여 먼저 채택되었던 것으로 오순절 운동이 신약 시대의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차원이 잘 반영되어 있다.³⁾ 즉 오순절에로의 복구 (Back to Pentecost)를 주장하며 이러한 부흥운동이 곧 신약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라고 믿었다.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은

1) 그에 대한 전기 (biography)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James R.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 Charles F. Parham and The Missionary Origins of Pentecostalism* (Fayetteville, AR: Univ. of Arkansas Press, 1988).

2) 그에 대한 전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 Nelson, *For Such a Time As This: The Story of Bishop William J. Seymour and the Azusa Street Revival* (Univ. of Birmingham, 미간행박사학위논문, 1981).

3) Nils Bloch-Hoell, *The Pentecostal Movement* (New York: Humanities Press, 1964), 18-30; Robert M. Anderson, *Vision of the Disinherited: The Making of American Pentecostalism*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9), 47-61; Edith L. Blumhofer, *Restoring the Faith: The Assemblies of God, Pentecostalism, and American Culture* (Urbana/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93), 43-56.



역사적으로 전통적 교회가 추구하는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린스턴의 개혁주의 신학자 워필드 (B. B. Warfield)는 사도시대의 교회가 기적을 행하는 교회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그 시대에 국한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체험되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⁵⁾ 이러한 지배적 분위기 가운데 방언과 기적의 교리화를 주장하는 오순절 운동이 기성교회에서 수용되어질 수 없음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파함은 원래 순회전도자 (itinery preacher)로서 자신의 소속 교회로부터 탈퇴한 목회자이었으며 그가 1900년에 시작한 캔사스 (Kansas)주의 토페카 (Topeka)에 소재하였던 베델 성경학교 (Bethel Bible School) 또한 기존의 교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학교이었다. 이 성경학교 재학생들과 파함에 의하여 시작된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 (initial evidence)로서의 방언 (tongue speaking)은 사실상 기성교회와 지역 사회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에 불과하였다.⁶⁾

이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오순절주의자들이 분리와 결합 등의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그들의 교단을 형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와는 달리 사도적 신앙의 회복을 이상으로 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순절 교회의 형성배후에 존재하는 공통된 교회론적 요소는 무엇인가? 1960년대 이후에 오순절 교회의 영향력 아래서 등장한 은사주의 운동 (the Charismatic Renewal Movement)의 교회론은 어떤 측면에서 오순절 운동의 교회론과 다르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또한 이런 변화를 거치는 가운데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이 교회론적으로 기존의 전통적 교회론의 모습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가를 본 논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종말론과 성령론을 중심으로 살펴 본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교회론에 대한 이해

홀렌웨거 (Walter J. Hollenweger)는 오순절 운동의 교회론은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려는 의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다.⁷⁾ 그러나 이러한 신약시대의 이상적인 교회로의 복귀는 사실상 교리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없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즉 교회를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구속되어진 무리들 (host redeemed by the Blood)’라고 부르는 것은 곧 교회가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교회임을 뜻한다.⁸⁾ 이러한 교회에 대한 성령론적 이해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들이 지닌 조직적 측면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신앙인들의 친교 (fellowship of the confessed believers)만이 내포되어 있다.⁹⁾ 그렇다면 왜 오순절 운동이 성령론의 가시적 측면, 특히 성령세례의 가시적 측면을 강조하는 초기 증거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성령 사역의 가시적 결과로 드러나는 교회의 조직적 차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먼저 오순절 운동이 전반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¹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순절 운동에서 교회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로마 카톨릭 출신의 오순절 운동 연구가인 폴 리 (Paul Lee)는 오순절 운동이 성령이 새롭게 부어졌다는 성령세

4) B. F. Lawrence, *The Apostolic Faith Restored* (St. Louis: Gospel Publishing House, 1916), 11-12. Donald W.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1994), 26.

5) Benjamin Warfield, *Counterfeit Miracl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8), 5-6.

6)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 79-86.

7) Walter J.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London: SCM, 1972), 424.

8) Ibidem.

9) Bloch-Hoell, *The Pentecostal Movement*, 151: Myer Pearlman, *Knowing the Doctrines of the Bible* (St. Louis: Gospel Publishing House, 1936), 345.

10) 일반적으로 오순절 신학의 입장에서 썩어진 교회론에 대한 단행본으로는 다음이 유일하다고 여겨진다. Melvin L. Hodges, *A Theology of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Pentecostal Perspective*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77).



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력투구하였기 때문에 교회와 교단을 형성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한다.¹¹⁾ 이러한 교회의 조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의 결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단지 이를 신약시대의 이상적인 교회의 회복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대답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초기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찰스 파함의 교회에 대한 신학적 사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전기를 집필하였던 제임스 고프 (James R. Goff, Jr.)는 오순절 운동의 기원과 관련하여 파함의 역할을 선교적 동기 제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²⁾ 여기서 ‘선교적’이란 구체적으로 전천년설, 즉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근거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복음전도와 관련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는 그의 성경학교 학생들에게 임하였던 방언의 성격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처음으로 방언을 체험하였던 오즈만양 (Miss Agnes Ozman)의 경우 자신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선교와 관련시키면서 자신이 중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증거하였다.¹³⁾ 즉 파함이 주장하였던 성령세례에 대한 초기 증거로서의 방언은 황홀경 (ecstasy)에 빠지는 신비로운 체험이 다가올 종말에 대한 위로로 이해되어지는 표식 (sign)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촉박성에 근거한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파함의 베델 성경학교 재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으로 불우한 현실에 처해 있던 자들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수단의 일환으로 전천년설적 종말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앤더슨 (Robert Anderson)은 초기 고전적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성령세례란 초자연적 능력을 부여받고 누리는 수단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체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졌다고 주장한다.¹⁴⁾ 성령 세례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초기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양대 산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서 성령 세례가 오순절 사상 (Pentecostal ideology)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앤더슨은 평가한다.¹⁵⁾ 종말론적 기대가 실현되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식어가게 되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모임을 유지하면서 기존 교회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분하는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왜 파함과 시모어는 자신들의 사도적 신앙 운동 (The Apostolic Faith Movement)이 하나의 교회로 형성되도록 유도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파함이 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신학과 완전히 다른 신학을 가르치는 기존의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기독교에 대한 적(enemy)으로서 형식주의자들 (formalists)과 열광주의자들 (fanatics)을 들었다.¹⁶⁾ 따라서 파함은 기존의 교회를 혐오하였다. 그는 자신의 제자 시모어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아주사 대부흥운동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나 자신이 직접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에 도착하여 이 운동을 목격하게 되자 그 광적인 분위기에 혐오감을 느꼈으며 결국 시모어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 이 부흥 운동을 목격하면서 시모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가 가져다주는 열광적인 분위기에만 도취하여 현실 도피의 차원에서 위로를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11) Paul D. Lee, *Pneumatological Ecclesiology in the Roman Catholic-Pentecostal Dialogue: A Catholic Reading of the Third Quinquennium (1985-1989)* (Diss. Pontificum Univ. Rome, 1994), 15; Veli-Matti Karkkainen, *An Introduction to Ecclesiology, Ecumenical, Historical & Global Perspectives* (Downers Grove, IL: IVP, 2002), 72-73.

12) Goff, *Fields White Unto Harvest*, 15.

13) 상계서, 69, 164-165.

14) Anderson, *Vision of the Disinherited*, 8, 92;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167.

15) Anderson, *Vision of the Disinherited*, 96-7.

16) Douglas Jacobsen, *Thinking in the Spirit: Theologies of the Early Pentecostal Movement*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2003), 43-44.



파함은 시모어의 성령세례 이해에는 자신이 강조하던 선교를 위한 종말론적 요소가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파함과 시모어가 초기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던 종말론적 요소들에 대하여 성령론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적 신앙운동은 하나의 교회로 형성되어지지 못하고 나뉘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령세례의 신학적 이해를 떠나서 외형적 요소로만 판단할 때 성령세례라는 공통분모에 의하여 파함과 시모어는 하나로 연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성령세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해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¹⁷⁾ 즉 초기 고전적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세례라는 독창적 가르침에 근거한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통된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의 교회를 설립하고 지속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성령세례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가 양분화되는 가운데 성령론이 오순절 교회론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파함과 시모어가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주 무대에서 사라진 후에 오순절 그룹들 가운데 성령세례라는 교리의 해석에 있어서 상이점이 더 표면화되면서 하나의 오순절 교회를 향한 교회론적 기초를 상실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시작된 신약시대의 이상적인 교회의 회복 (restoration)은 사실상 구호에 그치게 되었고 신학적으로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을 지닌 다양한 오순절 교단들이 출현하게 되었다.¹⁸⁾ 제2의 축복 (the second blessing)을 주장하는 감리교적 배경을 지닌 그룹은 성화론에 있어서 완전 성화의 교리에 근거하여 성령세례를 성화 이후에 순결한 영혼에 임하는 또 다른 축복으로 이해하였다. 윌리엄 더함 (William Durham)을 중심으로 한 침례교적 배경을 지닌 그룹은 ‘갈보리의 종결된 사역’ (The Finished Work of Calvary)을 주장하면서 성화와 관계없이 중생한 자에게 임하는 성령세례를 주장하였다.¹⁹⁾ 성령세례와 중생, 그리고 성화의 상관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들의 교리적 차이는 흔히 ‘삼단계이론’ (three-stage theory)과 ‘이단계이론’ (two-stage theory)으로 각각 구분되어진다.²⁰⁾

이러한 분화 과정을 거쳐서 고전적 오순절 운동은 다양한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1930년대가 지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교회들이 안정되어가는 반면에 고전적 오순절운동은 신학적 특징상 각 교회들이 지닌 독립성이 강화되어진 결과로 교회들이 고립화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는 다양한 교단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오순절 교회들이 지닌 교제 (코이노니아)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순절 교회에서의 교제란 신자들의 모임, 특히 성령 세례를 체험한 신자들의 모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중생의 ‘체험’을 지닌 것을 뜻한다.²¹⁾ 따라서 중생의 체험에 기준하여 이에 합당한 생활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은 출교당하여야 했다.²²⁾ 오순절 교회내의 이러한 엄격한 치리는 교단 간의 차이를 심화시켰으며 그 결과 교단들이 더욱 독립적인 교회들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오순절 교회들이 전통적 교회들과 대화하려고

17) 상계서, 74-84.

18) 시넨은 오순절 운동의 성화운동적 기원을 강조함에 있어서 그 감리교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오순절 교단들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A Century of Charismatic Move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107-186. 이에 반하여 오순절 운동의 기원에 있어서 비감리교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Klaude Kendrick, *The Promise Fulfilled: A History of Modern Pentecostal Movement*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61), 145-201.

19) William D. Faupel, 'William H. Durham and the Finished Work of Calvary' in J. A. B. Jogeneel et al (eds.), *Pentecost, Mission and Ecumenism*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2), 85-95; Jacobsen, *Thinking in the Spirit*, 136-164.

20) Hollenweger, *Pentecostals*, 24-26.

21) 이단계 이론이나 삼단계 이론 모두 출발점이 중생이므로 모든 오순절 교회의 신자들은 중생의 체험을 지닌 신자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2) Bloch-Hoell, *The Pentecostal Movement*, 112.



시도하지 않았으며 전통적 교회들 또한 오순절 교회들을 무시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²³⁾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ies of God)는 교회연합을 주도하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를 좌악시하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이러한 이들이 주도하는 교회연합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²⁴⁾ 이러한 대립의 결과로 오순절 교회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전통적 교회들로부터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교회의 여러 교단들내에서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이 1942년에 복음주의자 연맹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을 형성하면서 반전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를 통하여 오순절 교회와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 간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지기 시작했으며 오순절 교회들은 복음주의 교회들에 의해 인정받고 수용되기 시작했다.²⁵⁾

1940년대와 50년대에 이르러 형성되어진 복음주의 교회들과의 화합적인 분위기는 신학적으로 오순절 운동의 ‘복음주의화’ (evangelicalization)로 평가되어지기도 한다. 블룸호퍼가 (Edith Blumhofer)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녀는 1960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회가 사실상 스스로를 복음주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²⁶⁾ 이는 하나님의 성회 소속인 토마스 지머만 (Thomas Zimmerman)이 복음주의자 연맹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건을 이 연합회를 사실상 하나님의 교회가 장악하게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해석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블룸호퍼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면서 제이콥슨 (Douglas Jacobsen)은 하나님의 성회가 자신이 지닌 근본주의적 신학과 분위기를 탈피하여 복음주의적 신학으로 완전하게 전환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²⁷⁾ 블룸호퍼와 제이콥슨의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의 성회가 자신들만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주위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순절 교회가 그들이 지닌 고유의 교리적 특징 자체를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60년 이후에도 오순절 교회의 성령세례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성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교리이다.²⁸⁾ 따라서 오순절 교회의 ‘복음주의화’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교리적 차원이 아닌 신학적 분위기 (ethos)에 관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분위기는 오순절 운동이 복음주의 교회들 비롯한 전통적 교회들 속으로 파고드는 신오순절 운동 내지는 은사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음이 사실이다.

3. 은사주의 운동의 교회론의 성격과 특징

1954년에 영국 출신의 선교사로 인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활동하였던 뉴비긴 (Lesslie Newbigin)은 오순절 운동이 대체적으로 교회연합운동과 소원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였다.²⁹⁾ 그는 교회연합운

23) John T. Nichol, *Pentecostalism* (New York: Harper & Row, 1966), 70-80. 홀렌웨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외로서 네덜란드에서 오순절 운동과 개혁신교회 사이에 서로 대화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례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432-433.

24)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444-451, 516-517.

25) Cecil M. Robeck, Jr.,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 in Burgess et al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635.

26) Blumhofer, *Restoring the Faith*, 195-196.

27) 제이콥슨은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신학을 스콜라적 (scholastic) 신학으로 정의한다. Douglas Jacobsen, 'Knowing the Doctrines of the Pentecostals: The Scholastic Theology of the Assemblies of God, 1930-55' in Edith L. Blumhofer et al (eds.), *Pentecostal Currents in American Protestantism* (Urbana/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99), 99-102.

28) 윌리엄 멘시스, 『오순절 성경교리』 (서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출판국, 1994), 멘시스는 하나님의 성회 소속 신학자로서 이 교리개요서는 1972년에 발간되었다. 특히 성령세례를 최초의 육체적 증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제 8장을 참고할 것.



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순절교회가 반드시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순절 운동은 1947년에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 연합을 위하여 '오순절 세계 연맹' (Pentecostal World Conference)을 결성하였다.³⁰⁾ 이는 앞서 언급되어진 오순절 교회 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 운동은 어디까지나 오순절 교단 교회들과 오순절 신학을 추구하는 이들 만의 연합운동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합운동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오순절 교회들이 기존의 전통적 교회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전통적 교회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령세례라는 오순절 운동 특유의 체험에 참여하는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신오순절 운동 (Neo-Pentecostal Movement) 또는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운동을 통하여 오순절 교회들은 기존의 교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이 운동이 더 많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되자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거의 모든 오순절 교회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WCC가 오순절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남아공화국 (South Africa)의 두 플레시스 (David Du Plessis)의 공헌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³¹⁾ 그는 1936년에 영국의 복음전도자인 위글스워스 (Smith Wigglesworth)의 예언을 받았는데 이 예언은 바로 오순절 운동의 세계화에 관한 것이었다.³²⁾ 이 예언은 오랜 기간 동안 실현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개인적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1954년에 두 플레시스는 일리노이 (Illinois)주의 에반스톤 (Evanston)에서 개최된 WCC 총회 (Assembly)에 정식으로 초대받게 되었고 1959년에 이르러서는 프린스턴, 예일, 유니언을 비롯한 저명 신학교들의 초청강연에 임하는 등 전통적 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로마 교황청의 초청을 받아 바티칸을 방문하고 교황을 알현하는 등 교회연합운동의 세계에서도 전격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오순절 교회와 로마 카톨릭 사이의 대화의 창구가 열리게 되었고 이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렇게 교회연합운동의 차원에서 두 플레시스가 활동하는 가운데 오순절 교회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의 교회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교회 내에서 신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다양한 목회자들이 활동하면서 신학적으로 기존의 교회들내에서 은사주의 운동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³³⁾ 은사주의 운동이 기존의 교회들 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 주장해왔던 성령세례로서의 초기 증거 (initial evidence)로서의 방언의 절대적 필요성을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³⁴⁾ 이는 초대교회에서 성령

29) Lesslie Newbigin, *The Household of God*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4), 120-121.

30) Cecil M. Robeck, Jr., "Pentecostal World Conference" in Burgess et al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707-710. 이 연맹은 유럽 오순절주의자들의 주도하에 결성되어진 교회연합운동 단체이다.

31) Michael Robinson, 'David Du Plessis - A Promise Fulfilled' in Jongeneel, *Pentecost, Mission and Ecumenism*, 143-155; R. P. Spittler, 'Du Plessis, David Johannes (1905-1987)' in Burgess et al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250-254.

32) Michael Harper, *As at the Beginning. The Twentieth Century Pentecostal Revival*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65), 51; Synan, *The Pentecostal-Holiness Tradition*, 224-226.

33)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로교 출신의 로드만 윌리엄스 (J. Rodman Williams), 화란개혁교회 출신의 해럴드 브렛슨 (Harald Bredesen), 루터교 출신의 래리 크리스텐슨 (Larry Christenson), 침례교 출신의 하워드 어빈 (Howard Ervin), 성공회 출신의 데니스 베넷 (Dennis Bennett), 영국국교회 출신의 마이클 하퍼 (Michael Harper)등을 들 수 있다.

34) 우리 나라의 대표적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의 신학에서도 이런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조용기, 『성령론』 (서울: 서울말씀사, 1998), 115-117;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오순절 교의학』 (서울: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출판국, 2003), 260-262.



세례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었듯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방언이 정상적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태도로 나타난다.³⁵⁾ 이러한 태도는 로마 카톨릭 내의 은사주의 운동에서 방언이 포함되지 않는 성령 세례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에드워드 오카너 (Edward O'Connor)는 이러한 태도를 취한 대표적인 인물에 해당된다. 그는 “어떤 사람은 성령세례와 동시에 방언하기를 시작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몇 시간, 몇 일, 몇 주가 지나도 아니 영원히 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주장하였다.³⁶⁾

이러한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한 은사주의 운동의 태도 변화는 사실상 은사주의 신학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교회들에 동화되면서 이들의 교리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회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은사주의 운동을 고전적 오순절 운동으로부터 구별 짓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첫째, 예배에 있어서 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예전을 존중하는 질서정연한 분위기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오순절 교회가 방언과 신유 등의 가시적 은사를 예배 시에 권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흔히 예기치 못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표현함에 있어서 예전 (liturgy)의 질서보다는 이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이 더욱 우선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은사주의 운동의 경우 기존 교회의 예전에 적응하여야 했으며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예배를 지배하던 열광적 분위기 (enthusiasm)는 이제 기도모임을 비롯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은사주의 운동의 예배는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기계적이며 (mechanical) 차분하고 (quiet), 복잡한 (sophisticated) 분위기를 지닌 예배로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었다.³⁷⁾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예전을 중시함에서 비롯되는 질서외식의 증가가 곧 바로 예배 의식에 있어서 자유로움(freedom)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제공하는 자유는 오히려 예전이라는 질서에 의하여 균형 잡힌 자유로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예배에 있어서 자율성 (spontaneity)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서정연함 (orderliness)을 뜻한다.³⁸⁾

둘째, 기존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은사주의 운동의 적극적인 태도는 기본적으로 성령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교회 연합 운동 (ecumenism)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이끌었다. 오순절 운동이 기존의 교회들로 파고들면서부터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전에 잔존하였던 분파주의적 (sectarian) 태도를 지양함에 있는데 이는 은사주의 운동이 지닌 특징이 다양한 교단과 신학적 차이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되어진 WCC와 두 플레시스의 관계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순절 운동의 어떤 측면이 교회 연합 운동적 요소를 자극시켰다고 볼 수 있는가? 하워드 어빈 (Howard Ervin)은 은사주의 운동이 신학적으로 반초자연주의적 (antisupernatural) 자유주의 신학 (liberal theology)과 기존 교단의 신학적 정통주의 (doctrinaire orthodoxy) 모두를 대체할 수 있는 신학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³⁹⁾ 이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초자연주의적 요소란 고전적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에 모두 작용하는 성령론적 요소로 정의되어진다. 그리고 신학적 정통주의의 교리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요소는 정서적인 요소로서 역시 성령론적인 것이다. 모든 은사주의 운동이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령론적

35) Don A. Basham, *A Handbook of Holy Spirit Baptism* (Monroeville, PA: Whitaker Books, 1969), 26.

36) Edward O'Connor, *The Pentecostal Movement in the Catholic Church* (Notre Dame: IN: Ave Maria Press, 1971), 134.

37) Wade H. Horton, "Introduction" in Wade H. Horton (ed.), *The Glossolalia Phenomenon* (Cleveland, TN: Pathway Press, 1966), 17; Richard Quebedaux, *The New Charismatics: The Origins,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Neo-Pentecostalism* (Garden City, NY: Doubleday, 1976), 151.

38) J. Rodman Williams, *Renewal Theology 3: Salvation, Church and the Last Thing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104-107.

39) Howard Ervin, *These Are Not Drunken, As Ye Suppose* (Plainfield, NJ: Logos International, 1968), 225-226.



요소는 성령세례라는 동일한 현실에 근거한 공통적 체험에 관한 것으로 교리적이거나 설화적인 (narrative)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⁴⁰⁾ 따라서 은사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공통적 경험을 근거로 교회연합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 체험이란 일반적으로 기도를통하여 구체화되었고 공통된 체험을 신학에 반영함에 있어서 각 민족과 국가가 지닌 특수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 (globalization)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⁴¹⁾ 은사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교회 연합 운동과 세계화는 사실상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되어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그 형성 과정에서 있어서 분파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었고 그 부정적 결과로 인해 교회 연합적 차원에 대한 실현이 오랜 기간 동안 연기되어 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셋째, 은사 지향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교회를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하여 더 폭 넓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측면과 이와 연관된 가시적 측면에 치중하여 그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또한 이런 초자연적 은사 가운데 특히 신유 (divine healing)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기독교적 접근과 성령론적 접근이 서로 상충되어진 결과로 오순절 교회 내에 분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말았다. 성령론적 접근의 경우 성령세례의 독창성과 방언이라는 초기 증거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로 신유를 비롯한 은사의 삼위일체론적 성격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²⁾ 기독교적 접근이란 사실상 19세기 신유운동 (divine healing movement)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치유자 (healer)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신유를 성령세례와 방언과는 별개의 은사로 취급하고자 하였다.⁴³⁾ 그러나 은사주의 운동의 경우 더 이상 성령세례라는 초기증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므로 은사를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시각을 벗어나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이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된다. 즉 은사를 성령세례의 차원에 국한하여 이를 성령 받음의 증거로만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은사 그 자체를 창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되어진다.⁴⁴⁾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루터란 은사주의 신학자인 아놀드 비틀링거 (Arnold Bittlinger)는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벗어나서 은사를 ‘천부적인 재능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⁵⁾ 비틀링거가 이해한 은사 개념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 이해하는 은사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국한하는 차원을 탈피하여 그 다양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⁶⁾ 따라서 은사의 참된 의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형편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

40) Kenneth J. Archer, *A Pentecostal Hermeneutic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pirit, Scripture and Community* (London/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128-130.

41) Allan Anderson,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Global Charismatic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4)

42) 이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판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리차드 개핀, 『성령은사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60: “... 즉 성령세례는 회심 이후에 (항상) 별도로 겪는 경험인데 그 은사가 바로 이런 성령세례를 증명해 준다는 견해는 신약성경에서 세워질 수 없는 견해일 뿐 아니라 성령세례 (성령선물)에 관한 신약의 교훈에 배치되는 견해이다.”

43) 이러한 견해 차이는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 교단 내에서 ‘초기증거 논쟁’ (initial evidence debate)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로 찰스 파함에 의하여 성령 세례를 체험하였던 신유운동가인 보스워스 (F. W. Bosworth)가 자신의 출신 교단이며 신유를 강조하는 CMA로 귀환하게 되는 분열을 겪기도 하였다. Synan, *The Holiness- Pentecostal Tradition*, 164-166.

44) 월터 홀렌웨어, ‘오순절교와 카리스마 운동’, C. P. M. 존스, G. 와인라이트, E. 아놀드 (편저), 『기독교 영성학』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00), 799.

45) 아놀드 비틀링거, 『은사와 은혜』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2), 69, 127-128.

46) 은사의 초자연적 성격을 부정하는 비틀링거의 견해는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은사를 기계적이며 획일적으로 이해한 잘못을 올바르게 지적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그가 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인 은사를 구분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인위적인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상계서, 67-70.



는 어떤 능력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은사주의 신학은 이러한 은사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체험한 은사를 바탕으로 모두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교회를 은사 공동체라고 부른다.⁴⁷⁾

넷째, 은사주의 운동의 성령론에 대한 강조는 교회론에 있어서 기독교론에 부여되어야 할 위치를 성령론이 대신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교회를 지나치게 성령에 의하여 구성되어진 교회로, 성령에 의한 친교 공동체로 이해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기독교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되어져서 (in-stituted)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즉 과거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성취되어진 구원에 근거한 교회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진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con-stituted) 교회란 그 구성에 있어서 성도의 주체적 역할이 더 강조되어지는 개념이다.⁴⁸⁾ 따라서 은사주의 신학의 교회 이해에는 교회의 공동체적 요소, 특히 성령에 의하여 하나로 묶여진 사실을 드러내는 친교를 강조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는 성령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나간다는 미래적 요소와 이에 대한 성도의 능동적 참여라는 차원이 잘 표현되어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구성의 기본 요소인 기독교론적 요소가 지니고 있는 구원의 사실에 대한 강조가 결여되기 쉽다는 사실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교회 형성 과정에는 오순절 운동이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성령세례 교리에 대한 이해와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의 결과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 그 결과로 고전적 오순절 교회는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자신들만의 분파주의, 그리고 기존 교회들과는 격리된 교회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순절 교회의 ‘복음주의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복음주의화란 교리적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차원의 복음주의화를 가리킨다. 1960년대에 이르러 성령세례가 기존의 교회들내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오순절 교회는 기존의 다양한 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회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된 은사주의 운동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교회론적으로 고전적 오순절 운동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첫째, 예배에 있어서 자유와 질서의 균형이 강조되었으며 둘째, 기존의 교회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가운데 세계화를 추구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으며 셋째, 은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동반하는 성령론적 요소에 대한 강조가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성령론적인 강조는 교회가 원래 지니고 있는 기독교론적인 강조점을 놓치기 쉬운 교회론이 나타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derson, Allan,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Global Charismatic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4).

Anderson, Robert M., *Vision of the Disinherited: The Making of American Pentecostalism* (New

47) Williams, *Renewal Theology*, vol. 3, 123-125.

48)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Studies in Personhood and the Church*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5), 140.



- York: Oxford Univ. Press, 1979).
- Archer, Kenneth J., *A Pentecostal Hermeneutic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pirit, Scripture and Community* (London/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 Basham, Don A., *A Handbook of the Holy Spirit Baptism* (Monroevill, PA: Whitaker Books, 1969).
- Bittlinger, Arnold, 『은사와 은혜』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2).
- Bloch-Hoell, Nils, *The Pentecostal Movement* (New York: Humanities Press, 1964).
- Blumhofer, Edith L., *Restoring the Faith: The Assemblies of God, Pentecostalism, and American Culture* (Urbana/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93).
- Blumhofer, Edith L. et al (eds.), *Pentecostal Currents in American Pentecostalism* (Urbana/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99). Burgess, Stanley M. et al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 Dayton, Donald W.,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1994).
- Ervin, Howard, *These Are Not Drunken, As Ye Suppose* (Plainfield, NJ: Logos International, 1968).
- Faupel, William D., "William H. Durham and the Finished Work of Calvary," J.A.B. Jongeneel et al (eds.), *Pentecost, Mission and Ecumenism*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2), 85-95.
- Gaffin, Jr., Richard A., 『성령은사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Goff, Jr., James R., *Fields White Unto Harvest: Charles F. Parham and the Missionary Origins of Pentecostalism* (Fayetteville, AR: Univ. of Arkansas Press, 1988).
- Harper, Michael A., *As at the Beginning: The Twentieth Century Pentecostal Revival*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65).
- Hodges, Melvin L., *A Theology of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Pentecostal Perspective*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77).
- Hollenweger, Walter J., *The Pentecostals* (London: SCM, 1972).
- Horton, Wade H. (ed.), *The Glossolalia Phenomenon* (Cleveland, TN: Pathway Press, 1966).
- Jacobsen, Douglas, *Thinking in the Spirit: Theologies of the Early Pentecostal Movement*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2003).
- Jones, C. P. M. et al (eds.), 『기독교 영성론』 (서울: 도서출판 영성, 2000).
- Karkkainen, Veli-Matti, *An Introduction to Ecclesiology: Ecumenical, Historical & Global Perspectives* (Downers Grove: IVP, 2002).
- Kendrick, Klaude, *The Promise Fulfilled: A History of Modern Pentecostal Movement*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61).
- Lawrence, B. F., *The Apostolic Faith Restored* (St. Louis: Gospel Publishing House, 1916).
- Lee, Paul D., *Pneumatological Ecclesiology in the Roman Catholic-Pentecostal Dialogue: A Catholic Reading of the Third Quinquennium(1985-1989)* (Pontificium Univ. Rome, 미간행박사학위논문, 1994).
- Menzies, William D., 『오순절 성경교리』 (서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출판국, 1994).
- Nelson, D., *For Such a Time As This: The Story of Bishop William J. Seymour and the Azusa Street Revival* (Univ. of Birmingham, 미간행박사학위논문, 1981).
- Newbigin, Lesslie, *The Household of God*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4).
- Nichol, John T., *Pentecostalism* (New York: Harper & Row, 1966).
- O'Connor, Edward T., *The Pentecostal Movement in the Catholic Church* (Notre Dame, IN: Ave



Maria Press, 1971).

Pearlman, Myer, *Knowing the Doctrines of the Bible* (St. Louis: Gospel Publishing House, 1936).

Quebedaux, Richard, *The New Charismatics: The Origins,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Neo-Pentecostalism* (Garden City, NY: Doubleday, 1976).

Synan, Vinso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The Charismatic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97).

Warfield, Benjamin B., *Counterfeit Miracl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8).

Williams, J. Rodman, *Renewal Theology*, Vol.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Zizioulas, John D., *Being As a Communion: Studies in Personhood and the Church*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5).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오순절 교의학』 (서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출판국, 2003).

조용기, 『성령론』 (서울: 서울말씀사, 1998).

Abstract

From the beginning, the Classical Pentecostal Movement, stirred by revival movement including Azusa Street Revival, has carried anti-ecclesiological character in its dogmatic vent. The doctrine of Spirit-baptism was, in fact, its epitome which was vehemently rejected by traditional churches. Pentecostal churches, therefore, had to maintain its fundamentalistic and sectarian spirit in their ecclesiology. However, the Pentecostalism began to be accepted into the various denominational churches starting from 1960's. It probably was the result of ongoing 'evangelicalization' within the movement. In this article, the four characteristics which differentiates the Charismatic churches from their Pentecostal counterparts: first, a balanced emphasis on the freedom and order, second, advocacy of globalization of the Christian churches, third, acknowledgment of church as community of the Spirit due to various interpretations of given charismata, fourth, an emerging danger of promoting pneumatological elements at the cost of christological elements in its ecclesiology.